

이번주 신간은… 〈과자는 마음이다〉 윤영달 지음/지에이북스 펴냄/1만 8천원

이 책은 50년간 과자에 빠져 산 저자가 크라운제과의 경영 위기를 경험한 뒤 북한산에 올랐다가 대금 소리를 듣고 음악의 치유 기능에 눈뜨면서 시작된 예술경영의 이야기를 담은 자전(自傳)이자 경영 에세이다. '과자는 마음이다'는 시간순으로 사건을 나열한 기존 최고경영자와 대기업 창업주들의 자서전과는 달리 인생의 시기별로 8개 키워드에 따라 자신이 겪은 삶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9/14~9/20 운주사 집계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청우당	6	설법하는 고양이와 부처가 된 로봇(선불교를 철학하다)	이진경	모과나무
2	조용헌의 인생독법	조용헌	불광출판사	7	그대는 꽃입니다	천룡스님/효석스님	사유수
3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산사 순례)	유홍준	창비	8	그래도 불교(성법 스님의 불교 강좌)	성법스님	민족사
4	붓다의 철학(중도, 그 핵심과 사상체계)	이중표	불광출판사	9	반야심경 여행	동봉스님	도반
5	요가디피카	현천스님	선요가	10	대행선사의 관법수행	청강스님	운주사

인류 갈등과 모순 해결하는 진리의 창고는 '佛敎'



그래도 불교

성법 지음/민족사 펴냄/1만 5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평소 '한국불교의 병폐와 잘못된 행태'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한 성법 스님은 이 책을 통해 "작금의 한국불교의 혼란은 승가의 문제인 인재(人災)이지 불법의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이런 승가의 폐단이 드러남으로써 새로운 대승불교운동이 일어날 징조가 보입니다. 〈화엄경 십지품〉 같은 인류 최고의 가르침이 연구되고 더욱 발전되어, 인류가 안고 있는 많은 갈등과 모순들을 해결하는 진리의 창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불교입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열어 준다.

이 책은 크게 2부로 편집됐는데, 1부는 성법 스님이 그동안 불자들에게 강의해 온 '진리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불교 교리' '수행' '현실 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법' 등을 정리한 것이고, 2부는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새로 쓴 화엄경 십지품 해설로 이루어져 있다.

성법 스님은 적폐 청산, 불교 개혁이 화두인 현 상황에서 화두 타파 후, 한국불교는 무엇을 담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아울러 한국불교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경전에 의거한 제대로 된 불교 공부를 통해 비불교적인 요소를 걷어내고, 나눔과 봉사 등 선행의 실천을 통해 진짜 대승불교답게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것, 한국불교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역설한다. 최근 언론매체의 가십거리로 등장하는 조계종 적폐의 원인을 대체로 몇몇 권승들의 권력 남용과 불투명한 재정이라고 한다. 성법 스님은 이 책의 머리말서 "재력을 몇몇 승려가 개인 소득처럼 유용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승가 모두의 수치"라고 하면서 경제와 정보의 양극화가 극심해지는 오늘날이야말로 사찰에서 경제와 정보의 재분배를 통해 양극화 해소에 앞장서서 실천하는 지역복지와 고령화 시대를 선도하는 문화의 주역으로 탈바꿈하는 절호의 기회요, 사찰은 이러한 보살행의 전진기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파불교가 사변(思辨)에 치중했다면 대승불교는 보살로서의 적극적인 이타행의 수행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 (중략) '온 법계에 합일하는 큰 사상, 일체 중생 구제의 보편화' 등 세계 종교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불교로 거듭난 것이 바로 대승불교입니다. (중략) 〈화엄경 십지품〉의 10바라밀은 그 전제가 '나와 중생은 하나'라는 것과 '수행의 목적은 오직 중생 구제'라는 대승불교의 숭고한 목적지를 명확히 한 것이 특징입니다. 간명한 〈십지품〉만을 근거로 평가해도 현재 한국불교의 승가와 재가의 행태는 명백히 비불교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행 및 현실 문제 해법 정리
〈화엄경 십지품〉 해설도 덧붙여

성법 스님은 이 책, 특히 2부를 새로 쓰게 된 동기를 현재 대승불교를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대승불교 본연의 모습을 망각한 한국불교의 현실을 반성하고, 대승불교를 되살려내기 위해서라고 밝힌다. 부파불교의 폐단을 반성하고 대승불교가 흥기할 당시 도약과 혁명과 같은 긍정적 변화의 중심에 바로 '〈화엄경 십지품〉'이 있었고, 조계종 개혁 이후에 새롭게 담아야 할 불교 역시 대승불교, 보살행의 실천이기에, 이 책의 2부를 화엄경 십지품을 10바라밀행과 접목해 해설했다.

성법 스님이 화엄경 십지품에 주목하는 것은 불교 수행과 믿음의 요체를 상세히 설하는데다 수행의 열 단계인 10지가 10바라밀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6바라밀까지는 자리 수행 덕목이고, 나머지 4바라밀이 이타 수행의 완성의 길인데, 6바라밀만 강조하고 이타행을 등한시한 것이 한국불교의 가장 큰 문제요, 불교의 대중화에 실패한 원인이라고 설파한다.

'禪語'는 힘얻고 작동케 하는 위대한 경험



설법하는 고양이와 부처가 된 로봇

이진경 지음/모과나무 펴냄/1만 8천원

선(禪)에 대한 치열한 사유의 기록

철학자 이진경이 선불교에 대해 치열하게 사유한 기록이다. 저자는 철학자의 눈으로 본 불법 세상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의문을 던진다.

저자는 그저 짖기만 하는 개는 부처가 아니라 로봇이라고 표현하며 변화된 조건에 맞추어 자신을 바꿀 수 있어야 불성이 있을 거라고 말한다. 하물며 인간은 어떨까?

철학자가 바라본 매혹적 선(禪)의 세계

저자 이진경은 본질적인 의미에서 글쓰기란 자신을 매혹시킨 알 수 없는 힘에 대해 쓰는 것이라 했다. 그렇게 쓰면서 조금이나마 그 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보았다. 〈벽암록〉으로 촉발된 저자의 호기심은 다양한 선어록을 접하며 철학하는 길로 이어졌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쉽게 떨칠 수 없다. 강하게 휘말려들 정도로 매력적인 선(禪)의 세계가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 저자는 불교에 입문하게 된 것이 '경악스런 사건'이라고 표현했지만 어쩌면 그건 이 세상을 철학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인연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없던 것을 이해하고, 쓸 수 없던 것을 쓰게 되는 일. 그것은 오늘의 내가 어제와는 다른 나이고, 내일의 나는 오늘과는 또 다른 내가 되는 '경악스런 사건', 동시에 너무나 매혹적인 것이다.

막연한 정답 찾기 빠진 세상서 답 구하는 경험

"나는 여전히 내가 가진 식견을 알아보고 깨어줄 분을 만나기를 바라지만, 보지도 않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던지는 저 '일반적인' 방황에서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사실 그것은 그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말들이다. 아니, 나도 하려고만 하면 누구에게든 해줄 수 있다. 이는 선이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라 정확히 반대되는 것 아닐까? 공안으로 전해오는 선사들의 언행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 타당한 '일반적 가르침'의 말씀이 아니다. 만나는 학인들의 그때마다 다른 상태를 포착해 그의 식견을 깨주기에 적합한 언행을 날리는 것이다." 저자는 이 때문에 선사들의 질문, 이를 테면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하는 말에 상반되는 답이 나온다고 말한다. "똑같은 질문이 누군가에게는 때론 미혹이 되다가 때론 깨달음을 주는 것도 이 때문이다. 누구에게나 던지는 항상 올바른 대답은 누구의 식견도 깨주지 못한다. 그래서 선승들은 자신이 했던 말조차 '사구(死句)'라는 생각에 뒤엎고 깨부수고 하지 않았던가."

부처가 말하는 삶, 당신이 원하는 삶은?

저자 이진경이 깨달은 것은 선(禪)의 언행이 당송 시대의 케묵은 화석이 아니라 지금 21세기 연기적 조건서 다시 힘을 얻고 작동하게 되는 위대한 경험이다. 각자 처해진 조건서 각자의 언어와 섞여 새로운 언행을 만들며 재탄생하는 엄청난 경험이다. 그런 경험으로 우리의 세상이 좀 더 평온하고 즐거운 것이 됐으면 하는 지식인의 원(願)이다.

김주일 기자

경전의 힘은?… 위로, 깨달음, 삶의 깊이



경전의 힘

정운 스님/담앤북스 펴냄/1만 6천원

헤르만 헤세 역시 불교에 심취한 작가였다. 그는 〈맛지마니까야(중아함경)〉를 읽고 소설 〈싯다르타〉와 〈데미안〉을 썼다. 〈데미안〉서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새의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유명한 구절은 이 경전의 영향을 받아 탄생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안젤리나 졸리의 몸에도 경전 구절이 한자 그대로 문신으로 새겨져 있다고 한다. 영화 〈인랑〉의 원작자, 오시이 마모루 감독 역시 불교적인 색채를 자신의 애니메이션에 넣기로 유명하다. 〈공각기동대2: 이노센스〉에는 주인공 쿠사나기의 입을 통해 〈숫타니파타〉의 구절을 변용한 대사가 등장한다.

부드러운 표현 속 숨긴 검같은 사유의 묘미

이처럼 경전은 품격과 우화, 비유적인 매력을 고루 갖춘다. 〈경전의 힘- 지금 나에게 답을 주는 고전 중의 고전〉에는 붓다의 숨결이 살아 있는 아함부 경전부터 화엄경, 금강경, 유마경, 오묘한 깨달음이 담긴 근현대 선사어록까지, 불교의 명언을 한 권에 볼 수 있다. 신문 사설 등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본 인용구의 출처가 불교 경전이라는 사실도 새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소중한 이에게 선물하고픈 진리

"삶이 나를 가로막을 때 그 말이 힘을 주었다" 2,600여 년을 내려온 불가(佛家)의 경전. 경전은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 때로는 죽비처럼 정신이 번쩍 드는 진리를 일깨운다. 책에서 소개한 명구절, 명문장만 읽어도 자신과 타인, 세상에 대한 관점이 보다 넓어질 것이다.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은 #친구 #평온 #고독 #성취 #소유 등 키워드별로 목차가 나뉘어 있어 쉽게 관련 명언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이다. 아랫사람에게 조언이나 쓴 소리를 해야 할 때 보다 현명한 태도로 말하고 싶다면 〈3장 감로와 독약이 혀 안에 있다〉 중 #_조언, 충고_, 애착 때문에 괴롭다면, 〈4장 집착을 내려놓다〉의 #사랑 #애증 #질투_를 통해 해답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다.

키워드를 큰 범주로 분류했기에, 경전 고유의 의미와 독자의 개인적 해석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과 감정별로 경전의 처방을 찾을 수 있다. 작은 양장본이기에, 소중한 사람에게 좋은 선물도 될 수 있다.

'한 권으로 읽는 경전'을 통해 경전에 흥미를 느꼈다면 금강경, 화엄경, 유마경, 입보리행론 등 세부경전을 읽을 준비도 마친 셈이다. 이처럼 경전을 제대로 접하고 싶은 이들에게 〈경전의 힘〉은 좋은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주일 기자

선禪으로 송시를 보다!

송시의 선학적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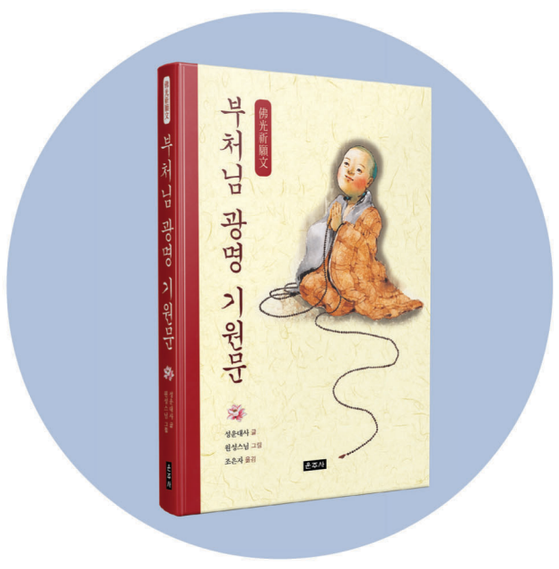
송대의 시가詩歌는 어떻게 중국 문학의 최고봉이 되었는가?

송시는 선적인 사유로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였기에 그들만의 문학세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박영환 지음 / 536쪽 / 값 27,000원

부처님께 드리는 100가지 기도!

부처님 광명 기원문



신심을 고취시키고 자비와 지혜를 증진시키는 기도발원문!

간결하면서도 일상적인 언어로 표현된 발원문과 동자승 그림으로 널리 알려진 원성 스님의 그림이 감동과 평온을 선물한다.

성운대사 글, 조은자 옮김 / 440쪽 / 전면컬러 / 값 23,000원

모든 것은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

윤회와 인과의 실제 이야기



선인선과, 악인악과! 이것이야말로 가장 명료하고 기본적인 불교의 가르침이다. 역사적 진실성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윤회와 인과의 사례들만을 골라 엮었다.

석운광 지음 / 200쪽 / 값 1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